

변했으면 변했으면

이은선 글 · 그림 / 책고래



코끼리가 되었다가, 치타가 되었다가... 원하는 대로 모습이 바뀌는 신기한 고양이 이야기!

《변했으면 변했으면》은 매일 사나운 개에게 쫓기던 고양이가 여러 동물로 변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이야, 내가 슈퍼맨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 혹은 초능력이자 되길 꿈꾸었을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종종 현실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곤 하지요. 《변했으면 변했으면》은 고양이의 ‘변신’을 통해 현실에 지친 아이들은 물론 어른의 마음까지 들여다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크고 힘센 동물로 변했으면, 변했으면...” “나무를 잘 타는 동물로 변했으면, 변했으면...” “아주아주 빠른 동물로 변했으면, 변했으면...” 고양이가 간절히 원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서 그리던 동물로 모습이 바뀝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저마다 아쉬운 점이 한 가지씩 있었지요. 과연 고양이는 마지막에 어떤 동물이 되었을까요? “변했으면, 변했으면” 아이와 함께 주문을 외우면서 서로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내 모습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지 솔직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01 늘 개에게 쫓기던 고양이는 힘이 세고 덩치가 큰 동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고양이는 여러 동물로 변했어요. 하지만 어떤 동물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다음 그림을 보고 말풍선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독후 이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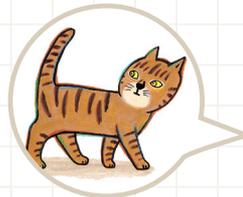
나는 덩치가 크고 힘이 아주 세.
하지만 _____



나는 정말 빨라.
하지만 _____



나는 힘도 세고 나무도 잘 타.
하지만 _____



나는 힘도 약해.
하지만 _____



나는 나무도 정말 잘 타. 겨울잠도 안 자.
하지만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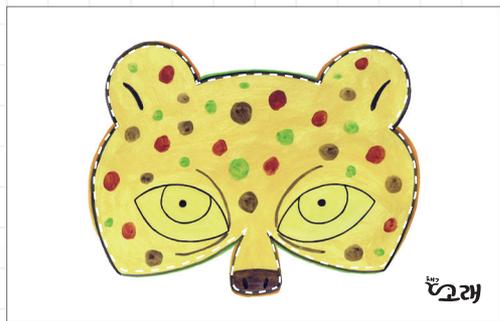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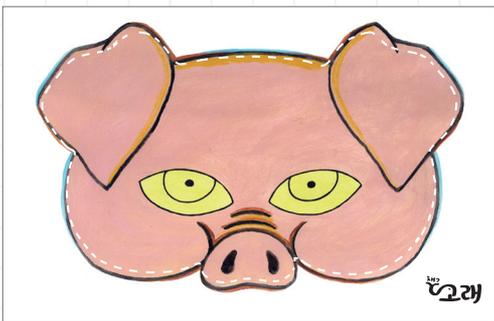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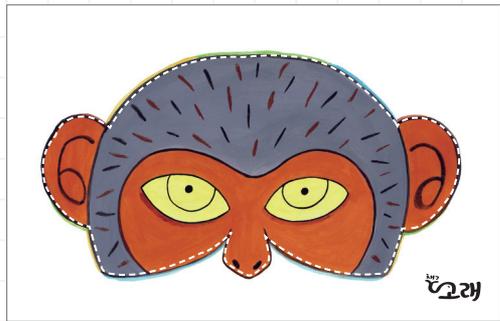
02 '변했으면, 변했으면' 주문을 외워 볼까요? 다음 실루엣에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어떤가요? 정말 이렇게 변하면 행복할까요? 그림 옆에 나만의 주문을 써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미술영역 및 심성 활동)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a wish or story.

03 가면을 쓰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림책 속 동물이 되어 보세요.



※꿈꾸는도서관 자료실(http://www.dreamlib.co.kr/datacenter/pic_list_total.php)에서 가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